

웹사이트의 일본어역 관광안내문 오류에 관한 연구

(고궁을 중심으로)

정 일 영
(경희대학교)

1. 연구목적 및 범위

관광객에게 관광안내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는 인쇄매체, 표지매체, 인터넷 매체를 들 수 있다. 이들 세 매체 중, 현대인들이 여행 출발 전 관광정보입수를 위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인터넷 매체인 웹사이트의 관광안내문이 아닐까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듯, 한국관광공사(<http://www.knto.or.kr>)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01, 2002; p156)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다고 답한 일본인 관광객은 2001년에 16.8%, 2002년에 25.5%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웹사이트라고 생각되는 한국관광공사의 Tour2Korea와 서울시의 Visitseoul의 일본어역 관광안내문 중 조선시대 고궁을 소개한 내용을 조사 대상 범위로 한정하여 일본어 관광안내문의 번역 오류와 기타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와 정일영(2002; 인쇄매체에 나타나는 오류)에서 얻은 결과, 현재 검토중인 표지매체에 나타나는 오류의

비교 검토를 토대로 향후 보다 일관성 있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일본어역 관광안내문의 매뉴얼 작성에 일조하고자 한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 범위로 정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Tour2Korea와 서울시의 Visitseoul은 내용 구성과 오류 양상에 다소 차이가 있어,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취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Tour2korea는 일본어역과 대조할 수 있는 우리말 원문이 없고, 각 궁의 문화재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며, 전통문화와 관련된 용어의 사용이 극히 적은 이유로 (1)어학적인 오류와 (2)기타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편,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Visitseoul은 Tour2korea와 달리 일본어역과 대조를 이루는 우리말 원문이 있고, 각 궁의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며, 전통문화와 관련된 용어의 사용이 상당수 있어, 정일영(2002)의 분석 방법에 따라 (1)어학적인 오류와 (2)전통문화 및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어휘상의 오류로 나누었고, 이 밖의 문제점은 (3)기타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지면 관계상 두 사이트에서 찾은 일본어역 오류 사례들 중 일부의 사례만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번역의 오류를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 일본인 남녀 유학생 3명과 우리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인 남녀 3명의 감수를 받았으며, 한일 양국의 사전과 한일 양국의 전통건축양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헌을 통하여 어휘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였다.

3. 선행연구

김경호(2001)는 지방자치단체 안내의 일본어 안내문에 초점을 맞추어 오역의 유형을 [문자 및 표기의 오용, 띄어쓰기의 오용, 어휘의 오용, 문법의 오용, 문체표현의 오용, 의미용법의 오용]으로 나누어 주로 어학적인 오용만을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2002년 발표한 「일본어역 관광자원해설 리플릿에 나타나는 오류에 관한 연구」에서 이를 [어학적인 오류와 전통문화 및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어휘상의 오류]로 나누어 조사 발표한 바가 있다.

4. 일본어역 오류의 유형과 그 사례

금번 조사를 통해 찾아낸 오류의 사례를 Tour2korea의 경우는 [어학적인 오류와 기타의 문제점]으로, Visitseoul의 경우는 [어학적인 오류와 전통문화 및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어휘상의 오류, 기타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그 문제점을 분석 고찰한다.

4-1. 한국관광공사의 Tour2korea

Tour2korea의 일본어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トラベル〉 エリア観光〉 ソウル特別市 항목에 조선시대 5궁에 대한 일본어역 관광안내문이 실려있으며, 각 궁에 대한 설명이 매우 간략하다는 점과 그 대조를 이루는 우리말 원문이 없다는 점이 서울시가 제공하는 Visitseoul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4-1-1. 어학적인 오류

이는 원어민의 철저한 감수가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가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문자 및 표기상의 오류, 문법 및 어휘상의 오류를 들 수 있다.

(1) 문자 및 표기상의 오류 사례

이는 잘못된 한자를 사용하였거나, 현행 일본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舊字體 한자, 다시 말해 워드작업시 신명조 약자로 처리해야 할 부분을 신명조로 처리하므로서 일어난 오류를 말한다.

1) 誤字의 사례:

이는 우리말을 일본어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동음의 한자나 유사한 한자

를 잘못 사용하여 일어난 오류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

- ① 即祚堂の懸板は高宗が1905年に**肯定**に即位した後、・・・。(덕수궁)
- ② 慶會楼と同じく池を掘り真中に人口島を作って・・・。(경복궁)
- ③ 昌慶宮は日帝植民**地期**(1910~1945)に昌慶苑に格下げされ・・・。(창경궁)

사례 ①~③의 한자는 일본어로 【コウテイ : 肯定 - 皇帝】, 【ジンコウ : 人口 - 人工】, 【ジキ : 地期 - 時期】와 같이 동음으로 발음된 한자 어휘를 잘못 사용하여 일어난 오류로 이는 모두 【▶ 皇帝 ▶ 人工 ▶ 時期】로 바로 잡아야 한다.

- ④ ソウル市**鍾路区**(덕수궁을 제외한 네 궁의 위치)

사례 ④는 덕수궁을 제외한 네 궁의 주소를 표기한 부분에 나타난 오류로 [종로구의 중]은 【술잔 鍾】이 아닌 【쇠북 鐘】으로 바꾸어 【▶ 鐘路区】로 써야 한다.

2) 舊字體 한자의 오류 사례: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Tour2Korea의 고궁 안내문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Visitseoul과 달리 각 궁의 안내문에 현행 일본어에서는 舊字體로 정하여 일반적으로 공용문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자의 사용이 너무 많아, 이들 중 현행 일본어에서 사용하는 한자와 舊字體 한자가 혼용되어 있는 일부만을 그 사례로 제시한다.

- ① 西**館**は国立現代美術**館分館**が入っています。(덕수궁)
- ② 徳寿宮觀覽客は宮中**遺物展示館**を無料で觀覽できる。(덕수궁)
- ③ 徳寿宮 / 昌徳宮 / 景**福**宮 / 昌慶宮 / 慶熙宮

사례 ①~③의 오류는 【▶ 館 / 術館 ▶ 遺/館 ▶ 福】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2) 문법 및 어휘상의 오류

이는 문법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일본어로서의 어휘 사용이 어색하거나 잘못 쓰여 일본어 문장으로서 부자연스럽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다수의 오류 사례 중에서 일부의 사례만을 제시한다.

1) 문법상 오류의 사례

① 徳寿宮入り口である大漢門を通ると禁川に出、王の駕籠が渡れるほどの幅の禁川橋があります。(덕수궁)

사례 ①은 일본어에서 명사와 명사를 이을 때, 우리말과 달리 조사「の」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규칙을 어긴 것과 문형상으로「～があり、～がある。」라고 하는 기본 문형의 규칙에 어긋나 문장이 어색해진 경우로 아래와 같이 고쳐 써야 한다.

▶ 徳寿宮の入り口である大漢門を通ると禁川があり、王の駕籠が渡れるほどの幅の禁川橋があります。

② 特に娥帽山と自然的な地形をそのまま生かして人工的な建物を調和させた、韓国の典型的な宮中後苑です。(경복궁)

사례 ②의 문장 앞에는 경회루와 향원정의 용도와 특징 등을 설명한 내용이 실려 있고, 곧바로 [특히: 特に]라는 부사어를 삽입하여 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설명이 되어 있다. 홍대형(p. 75)에 의하면 ‘교태전의 동북으로 연결하여 방과 청으로 구성된 무익공의 건순각이 있고, 뒤로 후원인 아미산이 있어 후원의 아름다움도 지니고 있다’와 ‘아미산은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의 후원으로 궁궐 후원 양식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설명으로 보아 상기의 사례는 경회루나 향원정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아닌 아미산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어역의【特に娥帽山と】는 공동격조사【と】가 아닌 주제격 조사【は】로 바꾸어주어야 한다. 또한【자연적인 지형을 그대로 살려 인공적인 건물을 조화시킨】이라고 하는 표현의 우리말을 그대로 직역한 듯하나 이는 일본어로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표현의 문장이다. 이는【건물과 자연의 지형과를 조화시킨】의 뜻을 나타내는 일본어 문장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特に娥帽山は建物と自然の地形とを調和させた、朝鮮時代の典型的な宮中後苑です。

③ もともとその半分は王が稲作を行った水田だったところを日帝植民地時代池にし船を浮かべ楽しむ場所にしたという春塘池や崇文堂、通明殿など見所が多くあります。(창경궁)

사례 ③의 문장 앞에는 창경궁의 정전인 명전전의 방향이 왜 다른 궁궐의 정전의 방향과 달리 남쪽이 아닌 동쪽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고, 곧바로【その半

分は]라고 받은 [춘당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게 번역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되었다. 이는 문장을 둘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춘당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 밖의 볼거리를 소개하거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 문장으로 번역한다면 일본어 문장으로서 보다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 ▶ 元々、春塘池の半分は王が稲作を行った水田であったが、植民地時代、日本によって船が浮かべるほどの池に変えられたそうです。この他にも崇文堂、通明殿など見所がたくさんあります。
- ▶ 元々、半分は王が稲作を行った水田で、植民地時代に池に変えられ、船を浮かべ楽しむところにしたという春塘池や崇文堂、通明殿など見所がたくさんあります。

2) 어휘상 오류의 사례

① 卽祚堂의 懸板は高宗が1905年に·····。(덕수궁)

사례 ①의 【懸板】에 대한 우리말 의미는 [글자나 그림을 새겨 문 위나 벽에 다는 널조각으로 흔히, 절, 누각, 사당, 정자 따위의 들어가는 문 위, 처마 아래에 걸어 놓는 것(표준국어대사전)]으로 일본어에 이에 해당하는 어휘는 [扁額: 門戸・室内などにかける横に長い額이다. 한일 양언어 모두 【扁額】라는 어휘는 있지만, 일본어에는 【懸板】이라는 어휘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는 【扁額】라고 바꾸어야 한다.

- ▶ 卽祚堂の扁額は高宗が1905年に·····。

② 休み: 毎週月曜日 (덕수궁)

사례 ②는 궁의 정기 휴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덕수궁의 경우에는 [休み]로, 창덕궁·경복궁·창경궁의 경우에는 [休業日]로, 경희궁의 경우에는 [休館日]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반 업무를 쉬는 경우에는 [休業日]라는 어휘를, 미술관과 같은 경우에는 [休館日]라는 어휘를 사용하지만, 공식적인 문장에서 [休み]라는 어휘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모두 【休日】나 【定休日】로 바꾸어 쓰는 것이 일체감을 준다고 생각한다.

▶ 休日 또는 定休日

③ 石造殿は～、解放後の1946年5月には米ソ共同委員会が·····。(덕수궁)

사례 ③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어휘인 [해방]이라는 어휘의 직역으로, 이

같은 어휘는 굳이 사용하여 이해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 石造殿は～、1946年5月には米ソ共同委員会が・・・。

4-1-2. 기타의 문제점

Tour2korea의 고궁에 대한 일본어 안내문은 대조할 수 있는 우리말 원문이 없어, 번역 이전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전통문화를 나타내는 어휘의 사용이 극히 적어, 어학적인 오류 이외의 오류를 한데 묶어 기타의 문제점으로 분류하여 오류 분석을 하였다.

① 徳寿宮入り口である大漢門を通ると禁川に出、王の駕籠が渡れるほどの幅の禁川橋があります。(덕수궁)

조선시대의 모든 궁에는 명당수가 흐르는 어구(御溝)가 있었고, 그곳에 석교(石橋)를 설치하여, 궁궐 정문과 외전 사이의 구분을 두었다고 하며, 석교를 칭하는 명칭도 궁에 따라 각각 달랐다고 한다(홍대형 p.235).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덕수궁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석교의 명칭으로, 덕수궁 안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과 덕수궁에서 배포하고 있는 리플릿, 그리고 홍대형(p.235)에는 [금천교]가 [錦川橋]라고 표기되어 있고, Tour2korea의 일본어 안내문에는 [禁川橋]로 각기 달리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31일 번역학회에서 본 연구자는 이들을 근거로 하여 [금천교의 금]은 [금할 禁]의 [禁川橋]가 아닌 [비단 錦]의 [錦川橋]로 바꾸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보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홍대형 교수의 자문을 들은 바로는 덕수궁의 석교에는 정확한 명칭이 없다는 것이었다. 단, 모든 궁에 흐르는 명당수를 [禁川]이라 하고 그 위에 설치된 석교를 통칭하여 [禁川橋]라 하기 때문에 이를 세간에서 [禁川橋] 또는 [錦川橋]라고 부른다고 한다. 특히, 덕수궁의 석교는 다른 궁과 달리 현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여, 홍순민(p.199)은 이를 ‘단단하게 보이는 돌다리인데 그 밑으로는 개울도 아니고 연못도 아닌 시멘트로 발라진 웅덩이가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볼 때, 과연 덕수궁의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석교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어느 쪽도 오류라고 할 수 없겠다. 지

면을 빌어 지난번의 오류 지적을 정정하는 바이다.

▶ 錦川橋 / 禁川橋

② ここは高宗がコーヒーを飲みながら、裏側にはロシア公園に通じていた狭く長い秘密地下通路が今も残っています。(덕수궁)

사례 ②는 함녕전 북쪽에 있는 정관헌을 설명한 문장으로, [러시아 공사관을 【러시아 공원】으로 표기한 오류와 정관헌과 러시아 공사관 사이에 지하 비밀 통로가 있다고 기술한 오류가 있다. 정관헌과 러시아 공사관 사이에 지하 비밀 통로가 있다고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으나 어떤 문헌에서도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방송 프로그램에 출현했던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 직원의 말(2003,5,10 ; MBC 토요일엔 떠나볼까)에 따르면, 비밀 통로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으나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고 있음을 볼 때, 이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사실인 것 처럼 웹사이트상에 기술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 ロシア公使館

③ 内部の天井には2匹の龍が描かれており、龍の爪の数はその龍の格を表しますが、中国・韓国を問わず大部分、五爪龍が王の象徴で、爪が七つの龍は皇帝を象徴しています。(덕수궁)

사례 ③은 덕수궁의 법전인 중화전의 천장에 새겨져 있는 용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이 문장을 통해서도 중화전 천장의 용의 발톱 수를 기술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고종황제가 거하던 중화전 천장의 용의 발톱수가 다른 궁과 다를 것을 기술하고자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당시 봉황 보다는 용이 한 등급 높게 인식되었고, 근정전의 용의 발톱이 일곱인데 비해 중화전의 용의 발톱이 다섯인 것은 당시 고종이 황제를 칭하기는 하였으나 중국 보다는 낮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 까닭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한다(홍순민, p.207). 확실 하지도 않은 사실을 굳이 들추어 용의 발톱수가 다섯인 경우는 왕을, 일곱인 경우는 황제를 뜻한다는 내용을 웹사이트상에 올려야 하는지 의심스럽다.

4-2. 서울시의 Visitseoul

Visitseoul의 일본어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見る〉ソウルの名所〉古宮 항

목에 조선시대 5궁에 대한 일본어역 관광안내문이 실려있다. 관광공사가 제공하는 Tour2korea와 다른점은 각 궁의 문화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의 정보가 있다는 점과 번역문을 비교 대조할 수 있는 우리말 원문이 있다는 점이다.

4-2-1. 어학적인 오류

(1) 문자 및 문체상의 오류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Visitseoul의 일본어역 고궁 안내문에서는 舊字體 한자를 사용한 오류를 발견할 수 없었던 관계로 誤字 및 문체상의 오류 사례만 제시한다.

1) 誤字의 사례 ;

① 1897年に26代王の高宗がロシア公事館から戻ってきてから、・・・。(덕수궁)

② 慈慶殿は26代王の高宗4年(1867)に景福宮の再建の際、**祖大妃**(24代王である憲宗の母君、神貞王后)のために・・・。(경복궁)

사례 ①은 【일 事】가 아닌 【부릴 使】, 사례 ②는 【할아버지 祖】가 아닌 【조나라 趙】로 바꾸어 써야 한다.

▶ 公使館 ▶ 趙大妃

③ 春塘池: チュンダンチ (창경궁) / 石造殿: ソクチョジョン (덕수궁) / 慈慶殿: チャギョンジョン (경복궁)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Visitseoul의 일본어 안내문에는 인명과 문화재명을 읽은 부분 가타가나로 표기하고 있어 일본인 관광객들이 우리의 문화재명을 일본식 발음이기 는 하지만 우리말에 가까운 발음으로 읽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례 ③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어문규정집(2001, p.125~126)의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가 다수 있는 점이 아쉬웠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고쳐 써야 한다.

▶ チュンダンジ ▶ ソクゾジョン ▶ ザギョンジョン

2) 문체상의 오류 사례 ;

일본어 문장쓰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체인 「だ・である體」와 정중함을 나타내는 「です・ます體」로 나누어. 일기와 같은 사적인 문장에서는 「だ體」를,

논리적인 문장이나 공식적인 문장에서는 「である體」를, 정중함을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です・ます體」를 사용하여 문장을 쓴다.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Visitseoul의 일본어역 안내문은 관광공사의 Tour2korea와 달리 보통체를 선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아래에 제시한 사례와 같은 오류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 ① 康寧殿は国王の寢殿だ。(경복궁)
- ② 17世紀の木造建築物の構造と～学術的にも価値の高い門だ。(창경궁)
- ③ 中和殿はもとは2階の宮殿だったが、・・・縮小された。(덕수궁)

사례 ①~③은 보통체 중에서도 사적인 문장을 쓸 때 사용하는 「だ體」를 사용하여 문장의 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 다음과 같이 바로 잡아야 한다.

▶ 寢殿である ▶ 高い門である ▶ 宮殿であった

- ④ 1910年代に朝鮮総督府の建物などで、弘礼門が撤去されるなど景福宮は多く毀損されましたが、・・・2001年10月に弘礼門はその姿を取り戻した。(경복궁)

사례 ④는 보통체와 정중함을 나타내는 문체를 한 문장 안에서 사용하므로서 일어난 오류로 이 또한 다음과 같이 바로 잡아야 한다.

▶ 毀損されたが、・・・2001年10月に弘礼門はその姿を取り戻した。

(2) 문법 및 어휘상의 오류

이는 문법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어휘 사용이 어색하거나 잘못쓰여 일본어 문장으로서 부자연스럽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된 경우를 말한다. 단, 이하에 제시하는 오류 사례는 지면 관계상, 많은 오류 사례중 그 일부만 제시한다.

1) 문법상 오류의 사례 ;

- ① 원래 성종의 형 월산대군의 저택으로 1593년 피난에서 돌아온 선조가 이곳을 임시궁궐로 **사용하면서 궁궐로 쓰이게 되었다.** (덕수궁)

→ もとは朝鮮の9代王の成宗の兄にあたる月山大君の私邸で、1593年に避難から戻ってきた14代王である宣祖が、ここを臨時の王宮として**使いながら宮殿**になった。

사례 ①은 덕수궁을 설명하는 첫부분에 나오는 문장으로, 우리말을 글자순에 따라 일본어로 직역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번역문을 보면 필요 이상으로 조사「の」의 쓰임이 많으며, 우리말의 [임시궁궐로 사용하면서]를 동시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일본어 어휘인 [~ながら]를 사용하는 오류와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어야 하는 부분에 변화의 뜻만을 나타내는 [~になる]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를 보다 나은 번역문으로 바꾸면 아래와 같다.

▶ もとは朝鮮代王成宗の兄にあたる月山大君の私邸で(あったが)、1593年に疎開から戻った14代王宣祖が、ここを仮宮に使い始めたのをきっかけに宮殿となった。

② 수정전 ; 정면 10칸, 측면 4칸으로 기단을 높이 쌓고 그 위에 건물을 세웠다. (경복궁)

→ 修政殿 ; 正面10間、側面4間の基壇を高く積み上げ、その上に建物を建てた。

사례 ②의 우리말 문장은 수정전의 건물 크기가 정면 10칸, 측면 4칸임을 나타내고 있으나, 번역문은 조사「の」를 「基壇」과 연결하므로해서, 기단이 정면 10칸, 측면 4칸인 것으로 서술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를 보다 나은 번역문으로 바꾸면 아래와 같다.

▶ 基壇を高く積み上げ、その上に正面10間、側面4間の修政殿を建てた。

▶ 修政殿 ; 高く積み上げた基壇の上に建てられた正面10間、側面4間の建物である。

③ 고종황제가 내외 귀빈을 접견하던 곳으로 . . . (덕수궁)

→ 徳弘殿、朝鮮時代26代王の高宗が国内外の貴賓を接見した場所で . . .

사례 ③은 우리말의 조사 [을/를]을 일본어 [を]로 바꾸어 놓으므로해서 생긴 오류로, 우리말의 [~을/를 만나다, 접견하다]를 일본어로 나타낼 때에는 아래와 같이 [~に会う, ~に接見する]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 朝鮮26代王高宗が国内外の貴賓に接見した場所で . . .

2) 어휘상 오류의 사례 ;

① 세종이 즉위하면서 상왕인 태종을 모시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창경궁)

→ 世宗大王が即位したとき、父君であった先王、太宗を祭るために造営し

た宮殿だ。

우리말에서 [상왕]이 나타내는 의미는 [자리를 물려주고 들어 앉은 임금(표준국어대사전)]을 뜻하는 것으로, 아직 살아 있는 왕을 지칭한다. 번역문의 경우, [祭る; 제사지내다/ 혼령을 모시다]라는 어휘를 선택하므로해서 태종은 죽은 왕이 되어버렸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고쳐쓸 수 있다.

▶ 太宗の後継ぎである世宗が父のため造営した宮殿である。

② 현재는 덕수궁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덕수궁)

→ 今は徳寿宮美術館になっている。

Visitseoul의 일본어 안내문에는 [현재]라는 뜻을 나타내는 일본어 어휘로 상기의 사례와 같이 [今]라는 어휘를 11번, [現在]라는 어휘를 2번 사용하고 있다. 물론 [今]라는 어휘를 사용하더라도 뜻이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이트 상의 문장은 공식적인 사항을 기술한 문장체의 문장이므로 구어체인 【今】라는 어휘를 사용하기보다는 【現在】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現在は徳寿宮美術館となっている。

③ 창덕궁과 함께 동궐이라 하였는데,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으면서 서로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창경궁)

→ 昌徳宮と共に東闕と呼んだが、堀を境にして隣り合いながら、相手を補う役割をした。

사례 ③은 창경궁과 인접해있는 창덕궁과 창경궁의 상호 기능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말 [서로]와 일본어 [相手]의 쓰임이다. 우리말 [서로]는 원칙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말이지만, 상기의 예와 같이 사람이 아닌 경우에 사용하더라도 별로 어색하지는 않다, 그러나 일본어의 [相手]는 [自分と一緒に何かをする人/ 自分と相対して争う人/ 自分と組になる人(三省堂)] 와 같이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례 ③의 【서로】에 해당하는 일본어로는 【双方; 一対となり関係しあう両方(三省堂)】가 있다.

▶ 昌徳宮と共に東闕と呼ばれており、堀を境に隣り合って、双方を補う役割をしていた。

4-2-2. 전통문화 및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어휘상의 오류

이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어휘나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어휘를 일본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로, 특히 전통건축 및 전통문화와 관련된 우리의 한자어휘를 그대로 일본어 번역문에 사용하므로서 생기는 오류를 말한다.

(1) 전통문화를 나타내는 어휘상의 오류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Visitseoul의 일본어 안내문은 전통문화와 관련된 우리 말 어휘중 번역이 어려운 어휘를 그대로 한자로 바꾸거나, 괄호 처리를 하여 부연 설명을 해주는 방법(사례 ③과 같은 경우)을 취하고 있다. 괄호 처리로 부연 설명을 하는 방법은 Tour2korea나 리플릿에서는 아주 드물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번역이 어려운 경우, 부연 설명을 달아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① 돈화문은 창덕궁의 정문으로 **정면 5간, 측면 2간의 2층** 지붕이다. (창덕궁)

→ 敦化門は昌徳宮の正門で**正面5間、側面2間**の二重の屋根になっている。

옛 건축물의 크기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사용되는 [正面 / 側面 / 間]이라고 하는 어휘에 대한 원어민들의 반응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적합한 어휘가 무엇인지 많은 문헌을 조사하던 중, 일본어에서 건축의 평면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間~面】 또는 【間口 ; 土地・家屋などの前面の幅 / 奥行 ; 家や地面などの表から奥までの距離 (広辞苑)】(日本を知る事典, p. 960)라는 어휘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어도 젊은이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미터법을 이용하여 크기를 제시해주는 것이 좋겠다.

▶ 敦化門は昌徳宮の正門で**5間2面**の二重の屋根になっている。

▶ 敦化門は昌徳宮の正門で**間口5間、奥行2間**の二重の屋根になっている。

② 회정당은 임금의 침전으로 순조 때부터는 **편전**으로 사용되었다. (창덕궁)

→ 熙政堂は国王の寢殿で、純祖の時から**便殿**として使われた。

홍순민(p.51)은 우리말의 [편전]이란 [왕이 주요 신료들을 만나 공식적인 회의를 여는 건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어의 [便殿]은 【天皇・皇

后が休息されるために臨時にもうけた場所(三省堂)를 뜻한다. 우리말의 [편진]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일본어 어휘로는 【表御殿, 天皇が執務したり公の行事のため出席したりする御殿】가 있다.

▶ 熙政堂は国王の寢殿で、純祖の時からは表御殿として使用された。

③ 두 홍예 사이를 받치고 있는 돌 위에도 남북쪽으로 **해태상**과
(창덕궁)

→ 二つのアーチの間を支えている石の上にも南北方面にへテ(想像上の動物で日本のこま犬にあたる)像

강경선(p.18)은 우리말의 [해태]는 [해치]라고도 하며, 【시비곡직을 가려내는 영물로 정의와 법의 상징물】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어의 [こま犬]는 【魔除けの犬 ; 마귀를 쫓는 개】의 뜻으로 상기의 사례에서와 같은 쓰임은 문제가 있으며, 이는 부연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二つのアーチの間を支えている石の上にも南北方面にへテ(想像上の動物で、正義と法の象徴物である)像

(2)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

여기에서 말하는 오류는 시대 표기나 역사적 사실을 서술함에 있어서 어휘를 잘못 사용한 경우의 오류를 말한다.

① **임진왜란** 이후 창덕궁은 정궁, 경희궁은 이궁으로 사용되었으며
(경희궁)

→ 文禄・慶長の役以降、昌徳宮は正宮として、慶熙宮は離宮として利用された。

* 1592년 임진왜란 때 (덕수궁의 리플릿)

→ 1592年豊臣秀吉時代の文禄・慶長の役の際に

Visitseoul의 우리말 원문에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나오는데, 이들 중 [임진왜란(1592) ; 경복궁]과 같이 연도 표시를 한 경우는 두번이고, 나머지 일곱 번은 상기의 사례와 같이 연도 표시 없이 [임진왜란]이라고만 표기하고 있다. 일본어 안내문의 경우는 경복궁 설명에만 [文禄・慶長の役(1592年)]과 같이 연도 표시가 있고, 나머지 여덟 번의 설명에는 연도 표시가 없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문장을 번역한 사람이 우리의 국어사전에서 기술하고 있

는 다음의 사실을 알고 [임진왜란]을 [文祿・慶長の役]라고 번역한 것인지, 아니면 리플릿의 경우처럼 두 사건을 한데 묶어 번역한 오류인지의 문제이다.

우리의 국어사전에서는 [조선 선조 25년(1592)부터 31년(1598)까지 2차에 걸쳐 우리나라를 침입한 일본과의 싸움(표준국어대사전)]을 [임진왜란]이라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 표시를 하지 않은 상기의 사례는 반드시 오류라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양국의 역사 관련 서적에는 [임진왜란 : 文祿の役; : 1592年] 과 [정유재란 : 慶長の役; : 1597年]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이현령비현령식의 기술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② 창덕궁 후원은 **태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창덕궁)

→ 昌徳宮の後苑は太祖(朝鮮時代の初代王)に造成されたもので、. . . .

우리말 원문에는 [태종]으로 표기되어 있고, 일본어 안내문에는 [태조]라고 표기되어 있어, 여러자료를 조사하였다. 홍대형(p. 155)에 의하면 [창덕궁의 북쪽에 있는 후원이 조성된 것은 태종대에 창덕궁이 이궁으로 창건되면서 이와 거의 비슷한 때인 태종 6년 4월에 조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있는바 이는 우리말 원문대로 **【태종】**으로 바꾸어야 한다.

▶ 昌徳宮の後苑は太宗(朝鮮時代の初代王)に造成されたもので、. . . .

③ 후원은 북원, 금원이라고도 불렀으며, 고종 이후에 **비원(秘苑)**으로 불렀다. (창덕궁)

→ 裏庭は、もとは北苑、禁苑と呼ばれたが、高宗時代(26代王)以降に今の名前の「後苑」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

오늘날 후원(後苑)이라고 불리는 [秘苑]은 일본강점기에 그 명칭이 격하되어, 그 후 상당 기간 [秘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다가 최근에 들어 후원(後苑)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된 것이므로 이는 다음과 같이 고쳐써야 한다.

▶ 26代王高宗以降「秘苑」とも呼ばれたが、現在は「後苑」と呼んでいる。

4-2-3. 기타의 문제점

아래의 사례들은 어학적인 오류와 전통문화 및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어휘상의 오류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오류들로, 이는 자칫 사소하게 다루어질 수 있으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사실을 주지한다면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이다.

① 관람료: 어른 1,000원 청소년(19~24세) 500원 18세 이하, 65세 이상은 무료 (창경궁)

→ 入場料: 24歳以上: 1,000ウォン、7-23歳: 500ウォン

창덕궁과 경희궁을 제외한 나머지 세 궁의 관람료에 대한 우리말 표기는 동일하지만, 창경궁의 일본어 안내문만은 사례①에서와 같이 달리 표기되어있다. 이는 같은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다른 것이다. 참고로 덕수궁과 경복궁의 우리말 원문과 일본어역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고, 창경궁의 일본어 안내문도 아래와 같이 바꾸어 표기하여야 한다.

우리말	어른: 1,000원, 청소년(19-24세): 500원, 18세 이하 65세 이상은 무료
일본어	25-64歳: 1,000ウォン、19-24歳: 500ウォン、18歳以下・65歳以上: 無料

▶ 25-64歳: 1,000ウォン、19-24歳: 500ウォン、18歳以下・65歳以上: 無料

② 다음은 교통편과 관람시간의 우리말 원문과 일본어 안내문이 다르게 표기된 사례이다.

우리말	지하철 5호선 서대문(4번 출구)	(경희궁)
일본어	交通: 地下鉄2号線西大門驛より...	"

우리말	3월~ 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30	(덕수궁)
일본어	3-10月 9:00~18:00、11-2月 9:00~17:00	"

첫 번째 사례인 경희궁의 경우는 일본어 안내문을 [地下鉄2号線]이 아닌【地下鉄5号線】으로 고쳐야 하고, 두 번째 사례인 덕수궁의 경우는 우리말 원문과 일본어 안내문이 서로 달라 사실을 확인을 위하여 덕수궁 관광안내소에 문의한 결과, 우리말 원문이 잘못된 것으로 두 경우 모두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야 한다.

▶ 交通: 地下鉄5号線西大門驛より...

▶ 관람시간: 3월~ 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③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Visitseoul의 고궁에 대한 일본어 안내문의 구성을 보면, 첫 면에는 각 궁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과 주소, 전화번호, 입장 시간, 입장요금, 휴일, 교통편이 실려 있고, 둘째 면에는 각 궁의 안내도

와 함께 번호순으로 문화재명이 실려 있으며, 뒤이어 번호순에 따라 각 문화재를 일본어로 설명하는 안내문이 실려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번호순으로 설명하고 있는 안내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 昌德宮의 경우 ; [7. 大造殿]에는 대조전에 대한 설명이 아닌 덕수궁의 준명당에 대한 설명이 삽입되어 있고, [12. 昌德宮の後苑]의 설명에는 후원을 설명한 마지막 부분에 덕수궁의 광명문에 대한 설명이 삽입되어 있다.

* 덕수궁의 경우: [7. 即祚堂]과 [8. 浚明堂]의 설명은 각기 달라야함에도 불구하고 7과 8의 내용이 동일하게 되어있으며, 각각의 설명에 즉조당과 준명당의 설명이 합쳐져 있다.

창덕궁의 경우에는 필요 없이 삽입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하고, 덕수궁의 경우에는 각 당의 내용을 별개로 설명하든지 7과 8의 번호를 합쳐 하나로 설명을 하든지 하여야 한다.

5. 문제점 분석

웹사이트의 일본어역 관광안내문도 리플릿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먼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리플릿과 비교 분석한 후, 두 사이트의 문제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5-1. 리플릿과의 비교 분석

정일영(2002)은 「일본어역 관광자원해설 리플릿에 나타나는 오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은 바 있다.

- 1) 일본어로 번역되기 이전의 우리말 안내문의 내용이 보다 충실히 만들어져야한다.
- 2) 일본어로 번역되어진 안내문은 보다 철저한 원어민의 감수가 필요하다.
- 3) 인명, 지명 등에 대한 표기 규칙이 필요하다.

- 4) 일본인 관광객의 이해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전통문화 및 역사와 관련된 직역투의 어휘들을 정리한 전문용어의 통일된 매뉴얼이 필요하며, 이를 감수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상기의 결론을 토대로 Tour2korea와 Visitseoul의 일본어역 오류를 조사한 결과, 두 사이트의 일본어역 관광안내문은 리플릿의 경우와 비교하여 나아진 면을 보이고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 Tour2korea는 일본어역과 대조를 이루는 우리말 원문이 없으나, Visitseoul은 대조를 이루는 우리말 원문이 있어, 오류 분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번역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Visitseoul의 우리말 원문이 리플릿의 우리말 원문보다 전통문화 및 전통건축 등과 관련된 어휘가 적어 번역하기 용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내용면에서 볼 때는 리플릿이나 웹사이트상의 우리말 안내문 모두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 일본어로 번역된 두 사이트 안내문의 원어민 감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관계로 리플릿과의 비교는 제시하기 어려우나,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감수가 요구되는 바이다.

셋째 ; 리플릿의 경우에는 인명이나 문화재명을 괄호 처리하여 가타가나로 표기하지 않고 있으나, Tour2korea는 각 궁의 명칭만을 가타가나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Visitseoul의 일본어 안내문은 인명이나 문화재명을 괄호 처리하여 가타가나로 표기하여주고 있어, 일본인 관광객이 우리의 문화재명을 일본식의 발음이기는 하지만 우리말에 가까운 발음으로 우리의 문화재를 읽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하고 싶다. 단, 한국어문규정집(국립국어연구원)의 외래어 표기법의 규칙(일한 번역을 위한 일본쪽의 표기 규칙이 없는 관계로 우리쪽 자료를 참고하였다)에 어긋난 사항이 다수 있는 점이 아쉽다.

넷째 ; 리플릿에는 우리의 전통문화나 역사와 관련된 어휘의 사용이 많았던 데 반해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Tour2korea는 안내 내용이 간략하여 전통문화나 역사와 관련된 어휘의 사용이 극히 적었고,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Visitseoul은 각 궁의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Tour2korea에 비해 비교적 구체적이며 전통문화와 관련된 어휘가 상당수 있어 이에 따른 직역투의 번역 오류 또한 다수 나타났다.

5-2. 두 사이트의 문제점 분석

앞 장의 분석방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두 사이트의 내용은 그 구성에 있어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Tour2korea는 각 궁의 문화재를 하나로 묶어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Visitseoul은 각 궁의 문화재를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분석방법에서 사용한 순서에 따라 두 사이트의 차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 어학적인 오류

- 1) Tour2korea는 전문에 걸쳐 현행 일본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舊字體 한자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나, Visitseoul은 舊字體 한자의 사용을 찾아 볼 수 없었다.
- 2) 문체적인 면에서 Tour2korea는 정중함을 나타내는 【です・ます體】를 사용하는데 반해, Visitseoul은 보통체인 【だ體】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두 사이트의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단, Visitseoul은 논리적인 문장이나 공식적인 문장에서 사용해야 하는 【である體】가 아닌 【だ體】를 사용하여 문장의 격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 3) 두 사이트 모두 직역투의 번역이 많아 원어민의 철저한 감수가 필요한 상태였고, 본 연구에서는 지면 관계상 모든 오류의 사례를 다루지 못하고 그 일부만 제시하였다.

둘째 ; 전통문화 및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오류와 기타의 문제점

- 1) 전통문화와 관련된 어휘뿐만 아니라 과거 한일 관계사와 관련된 [日帝植民地時期, 日本統治時代, 解放, 李王家 博物館] 과 같은 어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용어 규정이 없어 우리말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 2)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필요로 하는 번역 오류가 다수 있었다.

일본어로 번역된 관광안내문의 번역 오류는 일본인 관광객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미지 손상과 더 나아가 관광객 유치, 관광 산업의 선진화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일본어 관광안내문의 번역 오류 조사 연구를 통해 본 연구자가 절감하는 것은 보다 나은 일본어 관광안내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어민의 철저한 감수 못지 않게, 우리의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번역가의 양성과 전통문화 및 역사관련 어휘에 대한 일관성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허갑중, 2000, 「우리나라 관광안내체계에 대한 진단과 처방」, 관광I&I정보, 한국관광연구원.
- 김경호, 2001, 「한국 내 관광지의 일본어안내문 번역에 관한 실태조사와 문제점 연구」, 제4회 한국일본어학회 프로시딩스.
- 홍대형, 2001, 『한국의 건축문화재』, 기문당.
- 홍순민, 2001, 『우리 궁궐 이야기』, 도서출판 청년사.
- 윤장섭, 2001, 『일본의 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 남기심, 2001, 『한국 어문 규정집』, 국립국어연구원.
- 김동현, 2002, 『서울의 궁궐 건축』, 시공사.
- 김왕직, 2002, 『그림으로 보는 한국 건축용어』, 도서출판 발언.
- 정일영, 2002, 「일본어역 관광자원해설 리플릿에 나타나는 오류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3-2』, 도서출판 동인.
- 권영미, 2001,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 권영미, 2002,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참고사건

新村出編, 1978, 『広辞苑 第二版補訂版』, 岩波書店.

- 三省堂編修所, 1978, 『広辞林 第五版』, 三省堂.
大島建彦 外五人, 1982, 『日本を知る事典』, 社会思想社.
大阪外国語大学 朝鮮語研究室編, 1986, 『朝鮮語大辞典 上·下卷』, 角川書店.
日本史広辞典編集委員会, 1997, 『日本史広辞典』, 山川出版社.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상·중·하』, 두산동아.



[Abstract]

**The Study of Errors in Korean-Japanese Translation for the Online
Travel Information Guides**

**(This research is mainly focused on the online guides to the old palaces
in Korea.)**

Chung,Il-Young
(Kyung Hee University)

Among three media providing tourists with travel information (printed materials, internet web sites and signboards), it is probably the internet web sites that people approach first and most to gather travel information before they actually hit the road.

According to the annual survey(2001, 2002) released by KNTO(Kore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 <http://www.knto.or.kr>), the number of Japanese visitors who obtain travel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has been increasing from 16.8% (2001) up to 25.2%(2002).

I carried out a research(2002) on two main web sites offering travel information, “Tour2korea”(KNTO), and “Visitseoul”,(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ubsequently, discovered that both online guides bear no less translational problems than the leaflets which previously appeared to have problem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 1) “Tour2korea” appears to use the old character style across the board which cannot be found in current Japanese usage while “Visitseoul” hardly bears the old character style.
- 2) While “Tour2korea” shows a polite form in style(*des · mas style*),

“Visitseoul” is displaying *da style*(plain form). As “Visitseoul” chooses *da style*(plain form) over *dearu style*, which is inappropriate for logical and formal writing, it has resulted in degradation of tone.

- 3) As it is proved that both web sites employ too simple a word-for-word translating method, Japanese speaking editors' thorough work is urgently required. This study covers the cases of those errors, but only partly due to the limited space herein.
- 4) Standard uniform Japanese terms for Korean traditional history as well as for particular history in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are required.
- 5) Translational errors caused by the failure in verifying historical facts frequently appeared.

Translational errors in the travel guides not only cause trouble in communicating and do damage to the national image, but also can be a big obstacle to attracting international tourists and promoting the tourism industry.

Finally, in a bid to bring improvement to the present translation for the online travel guides, my suggestions are:

native Japanese editors' thorough work should be applied, and translators with affluent knowledge on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history should be properly and professionally trained and employed, and standardized glossaries of historic and cultural terms should be published.

▶주제어: 어학적인 오류, 전통문화 어휘오류, 역사관련 어휘오류